

두 배 높아진 호남 투표율... '당원표'가 '조직표' 이겼다

민주당 8·2 전당대회

정청래 신임 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는 '당원의 표심'이 '현역 정치인의 조직표'를 이긴 흔치 않은 사례로 평가되면서 향후 광주·전남 정치 지형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호남 경선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당원 투표율을 기록하며 전당대회 판세를 결정지은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일반 당원의 표심과 투표율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임 정 대표도 당원 중심 당 운영과 지방선거 경선을 예고하고 있어 전당대회에서 '열악한 조직력'이 확인된 지역위원장들의 '지방선거 정치력'도 시합대에 올랐고, 광주·전남 지역 현역 정치인도 지방선거에서 경쟁자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또한, 정 대표가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공헌하고 있어 '밀실투표'를 통해 국민의힘 시의원을 예결위 부위원장에 선임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광주시의원들의 중징계도 예상되고 있다.

◇커진 '당원의 힘'...호남 지방선거 '태풍의 핵'=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는 향후 광주·전남 정치지형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태풍의 핵'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전당대회와 당내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독점하는 지역위원장의 '오더'에 따른 '조직 가동'으로 치러졌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조직표'와 '당원표'가 따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실제, 박찬대 후보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2명의 의원과 조직이 지원했고, 본인만 중립을 선언한 2명의 국회의원 조직도 결국 박 의원의 당선을 도왔다.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 의원들도 대다수 박 의원을 지지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4명의 국회의원이 지지한데 그쳤고, 광역·기초 의원의 지지는 적었지만 일반 당원의 적극적인 투표로 당선됐다.

이처럼 각 지역위원회의 '조직적인 지지'가 '당원의 자발적인 지지'에 밀리면서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도 당원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올라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역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당원 수를 3000~5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일반 당원의 투표가 이를 훨씬 크게 앞지르면서 조직동원의 의미가 사라진 셈이다.

일반 당원의 자발적인 투표는 투표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호남권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66.49% (12만4657표), 박찬대 33.51% (6만 2815표)를 기록했고, 총 36만5892명의 유권자 중 18만 7472명이 권리를 행사하면서 투표율은 51.24%에 달했다. 과거 호남 전당대회 투표율이 25~30%미만인 것에 비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반당원의 자발적 투표가 줄을 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야 강경 대응=당원 중심 여당 운영 등 예상=정청래 신임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호남 당원 투표율 51.24%
과거 25~30%보다 크게 높아
국회의원 '오더 투표' 약해져
내년 지방선거 큰 변수 떠올라
당원 중심 공천개혁 성사 관심

데 대해 "강제 집행하면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야 강경 노선도 예고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약속하면서 관련 후속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당원 중심의 당 운영도 예상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조는 내년 지방·선거 광주·전남 정치 지형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 신임 당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TF 진행시켜 추석전 마무리 하겠다"면서 "당원의 뜻을 받들어 주요 당 의사 결정은 당원 뜻 물어 결정하고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원 중심의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면서 "컷오프(공천배제)를 없애 공정한 경선을 보장해 지방선거에서 가장 강한 후보를 만드는데 당력 집중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 '하위평가'와 '컷오프'를 적용하면서 후보 수를 줄여 나가고 있다. 통상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하위평가를 통해 20~30% 감산을 적용받는 대신, 신인 등 도전자들은 1차 경선 과정에 컷오프 한다. 이에 따라 컷오프가 현역에게 불리한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유리한 경쟁자를 본선 경선 상대로 선택하는 데 악용되는 경우도 잦고, 당원 표심과 어긋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예 컷오프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면 도전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호남 대다수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지 않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당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당 안팎에서 광주·전남 현역 기초단체장에게 엄격한 하위평가(30% 이상)를 적용하고, 지역구 2~3곳을 여성 전략공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등 '호남에서 당원 중심의 공천 개혁'이 이뤄질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광주·전남 일부 지역위원장의 '허술한 조직 밀천'이 확인됐다는 점도 경쟁진영의 거센 도전을 불러 올 전망이다.

한편 정 대표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야합을 하는 것은 당원이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과 예외없이 중징계해야 한다"며 "광주·전남 사안은 당에서 심각한 문제의식 속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중징계 처분된 논산시의회 사례가 있는 만큼 조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3일 지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나주 노안면의 한 오이밭을 찾아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첫 일정은 나주에서 수해복구 작업

"호남 특별한 희생에 보상 따라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첫 공식일정으로 호남을 선택했다.

정 신임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된 지 불과 16시간 만에 호남을 찾아 수해복구 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9시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의 한 오이 재배 농가를 찾았다. 정 대표는 밀집모지와 정화, 상·하의 운동복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정 대표는 농민들과 당원, 자원봉사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뒤 곧장 수해로 영망이 된 비닐하우스로 안으로 들어가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정 대표가 방문한 오이 재배 농가는 지난 극한호우로 3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4동이 물에 잠긴 곳이다.

정 대표는 "수해복구 중에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며 묵묵히 복구 작업에 열중했다. 정 대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이 덩굴과 분사 호수, 비닐멀칭 등을 잇따라 수거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방문은 지난달 말 전남을 찾아 수해 복구를 마친 뒤 당 대표 선거 이후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승리 유무와 관계없이 맺었던 약속으로 인해 당 대표 첫 공식일정이 전남 수해복구가 된 셈이다.

이날 수해복구 작업은 수많은 민주당원과 자원봉사자 덕분에 예정보다 1시간 이른 오전 10시 10분께 완료됐다.

정 대표는 수해 복구를 마친 뒤 농장주를 만나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크냐. 나도 텃밭농사를 지어 잘 안다"며 "농부는 고추대 하나만 쓰러져도 마음이 아프다. 한창 수확을 앞두고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농장주를 위로했다. 농장주는 "이 정도 수해 복구에는 인부만 10명이 필요하다"며 "(정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수해복구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는 이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고 하니 나름 보람이 좀 있다. 당은 항상 이렇게 민심이 아파하는 곳에 같이 가서 같이 호흡하고 그분들 숨결 느끼

면서 그분들 원하는 현안들을 정부에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는데 국가가 호남 경제 발전 위해 무엇을 해줬는가는 한 전남지역 지자체장의 말이 가슴 속에 계속 남아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호남 발전 위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뭔가 표식나게 호남인들에게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발걸음을 돌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尹, 변호사 선임...김건희특검 소환조사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수사 대응에 나섰다.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배보은(20기) 변호사는 지난 1일 특검팀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의 좌장 역할을 해왔다. 배 변호사는 내란 등 혐의 수사 변호인단에 속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에 선임계를 내면서 의견서 제출이나 소환조사 조율 등의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구

속된 이후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도 불응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은 당일 집행은 중지하고 물러섰으나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는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